



전기통신표준화자문위원회 부의장 再選을 맞으며



박 기 식
TTA 기획전략특별위원회 의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장

지난 1996년부터 맡아왔던 전기통신표준화자문위원회(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Group, 이하 TSAG 이라 함)의 부의장으로 재선됨으로써 소위 향후 TSAG의 수석 부의장 격을 맡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 ITU-T의 다른 SG(Study Group)들이 WTSA에서 존폐와 신설 등이 결정되는데 반하여, TSAG은 ITU 최상위 결정기구인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ITU헌장(Convention)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룹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TSAG이 4년마다 열리는 WTSA를 대신하여 표준화 연구반의 개폐 및 신설과 표준화 과제의 승인과 폐지는 물론, 그러한 SG들의 의장단 선임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TSAG을 “small WTSA”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만큼 이번 WTSA-2000에서 각 지역과 주요 선진국들이 동 그룹의 의장단에 진출코자 보이지 않게 격심한 물밑경쟁을 벌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인은 다행스럽게도 후보 추천단계부터 아·태지역의 TSAG Vice-Chair로서 통합된 유일 후보로서 지지를 받아 온 덕택에 부의장 재선에 애를 먹은 점은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WTSA-2000 기간 중 정보통신부 수석대표를 도와 타 SG들에 지원한 우리나라 후보의 진출에 많은 노력을 쏟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지면을 통하여나마 이번에 성공적으로 TSAG 부의장으로 재선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본인의 부의장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본인의 재선을 지원해 주신 APT의 여러분들과 아·태지역의 표준화 분야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TSAG과 IMT-2000 Special SG 등 중요한 그룹들에 의장단 진출을 일단 성공적으로 이룬만큼, 이제부터는 부족하지만 가진 능력과 최선의 노력을 바쳐 향후 4년간 ITU에서의 실속있는 의장단 활동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첨병으로서 아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아·태지역의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될 때라고 믿는다.